

□ TNSC, 금년 태국 수출 5-8% 성장 전망 (6.28, Bangkok Post)

- 태국화주협회(TNSC)는 미국과 EU의 경제침체에 반해 중국경제는 여전히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히며, 바트화 약세 및 수출 신시장 개척 등으로 금년 태국 수출이 전년대비 5-8% 성장할 것으로 전망함.
- 태국의 무역통계에 따르면 금년 1-4월 태국의 수출실적은 전년 동기대비 13.7% 증가한 971억 달러를 기록하였고 이중 대미 수출비중이 전체 수출의 16%, 중국과 EU가 각각 11.7%, 7.9%를 차지함. 대미수출은 전년 동기대비 21.5% 증가한 155억 달러를 기록하였고, 대중, 대EU 수출 역시 각각 전년 동기대비 0.9%, 4.3% 증가함.
- 차이찬 TNSC 회장은 상반기 대미, 대EU 수출이 호조를 기록하였으나, 하반기에는 경제침체 여파로 자동차 부품, 타이어, 전자부품 등의 품목에서 동 시장 수출 실적 하락이 예상된다고 함.
- 다만, 바트화 약세로 인한 태국상품의 가격경쟁력 상승, 식품 등의 수요 증가, 적극적인 수출 신시장 개척으로 금년 수출이 전년대비 5-8% 성장할 것으로 전망함.

□ 세계은행, 금년 태국 GDP 성장률 2.9% 전망 (6.30, Bangkok Post)

- 세계은행은 태국의 민간소비 및 관광산업 개선을 반영하여 금년 GDP 성장률 전망치를 금년 4월 전망치와 동일한 2.9%로 발표함.
- 러시아-우크라이나 전쟁, 중국 봉쇄조치 등의 하방요소에도 불구하고 관광산업 회복 및 수출 성장 등으로 금년 4분기에는 경제가 코로나19 초기 수준으로 회복될 것으로 전망함.
- ※ 한편, 금년 물가상승률은 14년 만에 최고치인 5.2%, 에너지와 식품을 제외한 근원 물가상승률은 2.3%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
- 키아터풍 세계은행 선임 경제전문가는 금년 방태 외국인 관광객이 6백만 명을 기록하고 내년에는 2,400만 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함. 이에 따라 금년과 내년 GDP 성장률은 각각 2.9%, 4.3%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함.

□ 폭스콘, 향후 1년 안에 태국 내 EV 생산 가능할 것 (6.30, Bangkok Post)

- 6.28.(화) 대만 기술기업 폭스콘(Foxconn)은 빠라웃 충리를 예방한 자리에서 현재 국영 에너지기업 PTT와의 진행 중인 전기차(EV) 조립생산시설 완공시기를 당초 계획인 '24년 보다 앞당겨 향후 1년 내에 생산을 개시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함.
- 동 사의 계획에 따르면, 생산 개시 첫 해, 5만 대 생산을 시작으로 점진적으로 생산규모를 확대할 예정이며, 빠라웃 충리는 정부가 EV 조립생산시설 유치확대를

위해 다양한 혜택을 구상중이라고 함.

뉴스 보도 출처:

- <https://www.bangkokpost.com/business/2336048/tsc-sticks-with-export-growth-projection-of-5-8->
- <https://www.bangkokpost.com/business/2336738/world-bank-views-thai-uptick-at-2-9->
- <https://www.bangkokpost.com/business/2336553/prayut-vows-ev-production-within-year>